

웨이강아오 대만구의 금융 협력

작 성 | 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구기보 (jujifu@ssu.ac.kr)

목 차

1. 중국 웨강아오의 경제적 위상
2. 웨강아오의 금융 발전 현황
3. 웨강아오 대만구의 금융 협력
4. 종합 및 함의

- 2019년 2월 18일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계획 강요」가 발표되면서 웨강아오(광둥성, 홍콩, 마카오)의 경제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전망임
-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광둥성은 제조업, 홍콩은 서비스업(무역, 금융보험, 물류, 전시 등), 마카오는 카지노 중심의 서비스업으로 특화됨
- 웨강아오에는 금융기관들이 상호 투자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
- 웨강아오 대만구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함
- 2016년 12월 5일 선강통(深港通)이 개통되면서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의 교차 주식투자가 가능해짐
-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웨강아오 대만구의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광둥성이 초국경 위안화 업무에서 접하는 비중은 2017년 23.4%로 전국 1위를 기록함

1. 중국 웨강아오의 경제적 위상

1) 웨강아오의 경제 협력 단계

■ 웨강아오 경제 협력 1단계

- 웨강아오(粵港澳)는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를 의미하며, 세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1979년 개혁개방의 시범기지로 중국 정부는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광둥성의 선전과 주하이로 경제특구로 개방함
 - 두 경제특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경제특구를 5개로 확대하였으며, 그 후 동부 연해지역 전반으로, 더 나아가 중국 전역으로 개방을 확대함

■ 웨강아오 경제 협력 2단계

- 웨강아오의 경제 협력은 2003년 지역무역협정에 해당하는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체결되면서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됨
 - CEPA는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면제, 서비스 시장의 개방,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내용을 포함함
- CEPA는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와 서비스 시장 개방의 범위를 확대함
 - 중국 본토와 홍콩 간 CEPA 후속 협정에 의해 2018년 기준 1,901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부여함. 서비스 무역의 경우 2015년 11월 CEPA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153개 서비스 분야를 개방함
 - 또한 2005년 10월 21일 중국 본토와 마카오 간 CEPA 보충의정서 II에 의해 대중국 수출상품 전체로 관세 면제를 확대함. 2004년 10월 27일 CEPA 보충의정서에 의해 기존 물류, 금융 등 18개 서비스 분야 이외에 IT, 지적재산권 등 6개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함. 중국 본토 개인 관광객이 허용되면서 2016년에는 마카오 방문객의 66.1%를 차지함

■ 웨강아오 경제 협력 3단계

- 2019년 2월 18일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계획 강요(粵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가 발표되면서 웨강아오의 경제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 기존의 웨강아오 경제 협력이 광둥성의 동부 지역에 집중된 것과 달리 「동 계획 강요」는 광둥성의 서부 지역에 대한 발전에 중심을 두고 있음

2) 웨강아오의 경제적 위상

■ 웨강아오의 주요 경제지표 분석

- 2018년 광둥성의 인구는 1억 1,346만 명으로 중국 본토 인구의 8.1%에 불과하지만, 광둥성 GDP는 9조 7,278억 위안으로 중국 본토의 10.8%를 점하고 있음
 - 광둥성의 1인당 GDP는 8만 6,412위안으로 중국 본토 평균보다 1.3배 정도 높은 수준임
- 2018년 홍콩 인구는 748만 명으로 광둥성 인구는 물론 선전시 인구에도 못 미침. 홍콩의 GDP 규모는 3,648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4만 8,958달러를 기록함
- 마카오의 인구는 65.9만 명에 불과하며, GDP는 516.6억 달러임. 그러나 1인당 GDP는 8만 1,871달러로 홍콩을 크게 앞서고 있음

표 1 | 웨강아오 주요 지표 분석

	중국 본토	광둥성	홍콩	마카오
인구(만 명)	139,538	11,346	748	65.9
전체 대비 비중(%)	100	8.1	0.5	0.05
GDP (억 위안, 억 USD, 억 USD)	900,309	97,278	3,648	516.6
1인당 GDP (위안, USD, USD)	64,644	86,412	48,958	81,871

출처: 中国统计摘要(2019)

■ 웨강아오의 산업구조

- 2017년 기준 광둥성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이 53.6%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다음은 2차 산업으로 42.4%를 점하고 있음
 - 2017년 광둥성의 산업 비중은 2008년에 비해 3차 산업은 증가하였으나, 2차 산업과 1차 산업은 감소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2 | 광둥성의 산업구조(GDP의 산업별 구성) 변화 추이 (단위: %)

		중국 전체	광둥성
2008년	1차 산업	5.2	5.5
	2차 산업	48.6	51.6
	3차 산업	46.2	42.9
2017년	1차 산업	4.9	4.0
	2차 산업	36.3	42.4
	3차 산업	58.8	53.6

출처:中国统计年鉴(2018)

- 홍콩은 제조업 비중이 1.2%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2017년 홍콩의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업종은 701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도소매업이며, 다음은 금융보험업(618억 달러), 공공행정·사회 및 개인서비스업(594억 달러)의 순임
 - 특히 금융보험업이 2000년 209억 달러에서 2017년 618억 달러로 3배 정도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3 | 홍콩의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생산액 (단위: 억 USD)

지표	2000	2010	2017
무역·도소매업	353	527	701
숙박 및 요식업	48	72	107
운수·창고·우편·속달	124	176	196
컨설팅·통신	55	70	111
금융보험	209	362	618
토지·전문 및 상용서비스	151	240	350
공공행정·사회 및 개인서비스	310	376	594
부동산관리	177	235	335

출처: 中国统计年鉴(2018)

- 마카오의 산업별(업종별) 취업인구를 보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000년 3.8만 명에서 2018년 6천 명으로 급감함. 마카오의 산업구조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음
 - 2018년 38.5만 명의 취업인구 중에서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9.6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호텔 및 요식업 종사자 5.6만 명, 도소매업 종사자 4.4만 명의 순임

표 4 | 마카오의 취업인구 구조 (단위: 만 명)

지표	2000	2010	2018
취업인구	19.5	31.5	38.5
제조업	3.8	1.5	0.6
도소매업	3.0	4.1	4.4
호텔 및 요식업	2.1	4.3	5.6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및 기타 서비스업	2.2	7.5	9.6

출처: 中国统计摘要(2019)

2. 웨강아오의 금융 발전 현황

1) 광둥성의 금융 발전 현황

■ 은행

- 2017년 광둥성의 은행업 금융기관은 1.7만 개(법인, 분지행 포함)에 달하며, 총자산 22.7조 위안이고 종사자 수는 35.8만 명에 달함
- 광둥성의 은행업은 1978년 대출액이 71.0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는 중국 전체의 9.8%로 중국 1위에 올랐으며, 2017년 19.5조 위안으로 크게 성장함
- 2017년 기준 광둥성에 진출한 외자 은행은 19개 국가(지역)의 58개 은행이 257개 분지행을 설립함
- 그중 10개의 홍콩계 은행이 광둥성에 24개 분행과 129개 지행을 설치하여 광둥성 외자은행의 56%를 점함

■ 증권

- 2017년 본사를 광둥성에 두고 있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는 각각 28개와 31개에 달하며, 선물회사는 22개임
- 2018년 9월 중국 내 증권회사는 총 131개가 있으며, 그중 합자증권사는 12개가 존재함. 그중 홍콩계 증권사는 동아첸하이(东亚前海)와 HSBC첸하이(汇丰前海)가 있음

■ 보험

- 2017년 기준 본사를 광둥성에 두고 있는 보험회사와 분지점은 각각 32개와 109개를 기록함

- 2018년 9월 중국 내 외자 보험사는 손해보험사가 24개, 생명보험사가 26개임. 그중 홍콩계 보험사는 HSBC생명(汇丰人寿)이 있음

2) 홍콩의 금융 발전 현황

- 1997년 홍콩의 금융업 총생산액은 1,245.1억 홍콩 달러로 GDP의 10.5%를 점하였으며, 무역업과 부동산업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2018년 상반기 홍콩 금융업 증가액은 2,490.8억 홍콩 달러로 부동산업을 넘어 2위를 차지함

■ 은행

- 홍콩은 글로벌 은행들이 가장 밀집된 도시의 하나임. 2018년 7월 홍콩에는 154개의 은행과 18개의 제한적 영업은행, 17개의 예금은행이 있으며, 그 외에 47개의 외자은행이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음
- 중국계 은행은 17개가 있는데, 그중 5개 은행이 홍콩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2개 은행이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음
- 홍콩에 진출한 중국 4대 은행의 대출구조를 보면, 2017년 농업은행홍콩의 회사대출 비중은 96.7%나 되며, 공상은행아시아 역시 82%, 건설은행아시아 77.0%로 모두 HSBC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중국은행홍콩만이 57.8%로 HSBC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반면, 개인대출의 경우 중국은행홍콩을 제외한 공상은행아시아, 농업은행홍콩, 건설은행아시아 등 세 은행이 모두 HSBC보다 낮은 수준임

표 5 | 중국 4대 은행과 HSBC의 대출구조 (단위: %)

		2015	2016	2017
회사대출	공상은행아시아	86.5	86.0	82.0
	농업은행홍콩	94.3	95.7	96.7
	중국은행홍콩	52.6	56.8	57.8
	건설은행아시아	73.1	74.2	77.0
	HSBC	61.9	61.9	63.6
개인대출	공상은행아시아	13.5	14.0	18.0
	농업은행홍콩	5.7	4.3	3.3
	중국은행홍콩	47.4	43.2	42.2
	건설은행아시아	26.9	25.8	23.0
	HSBC	38.1	38.1	36.4

출처: 亚洲金融智库(2018)

■ 증권

- 2018년 6월 기준 법인 형태의 증권사는 2,699개이며, 그중 홍콩거래소 참가자와 선물거래소 참가자, 비참가자는 각각 569개, 116개, 2014개임
- 홍콩증권거래소 참가자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골드만삭스, J. P. 모건, CITI투자은행 등 미국의 투자은행과 SC, HSBC, 도이치뱅크 등 유럽의 은행¹⁾, 노무라증권, 다이카증권, 삼성증권 등 아시아 증권사
 - 둘째, Emperor Capital(英皇証券), Celestial Securities(时富証券), Bright Smart Securities(耀才証券) 등과 같은 홍콩의 증권사
 - 셋째, 중국 본토의 상업은행이나 증권사가 홍콩에 설립한 증권사

1) 유럽은 겸업경영을 원칙으로 금융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이 기업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업무까지 겸하는 투자은행 기능을 하고 있음.

- 중국 본토 자본으로 설립된 증권회사의 경우 상업은행이 출자하여 설립한 증권사가 12개, 증권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증권사가 24개, 기타 기관이 출자한 증권사가 9개에 달함
- 홍콩에서의 IPO 실적을 보면 2013~2017년 기간 동안 10위권에 진입한 중국 본토 출자 증권사는 중국은행홍콩(5위)과 중신증권인터내셔널(7위)이 있음
 - 2017년 홍콩 IPO 실적에서는 1위~4위까지 모두 중국 본토 출자 증권사(CICC, 초상은행인터내셔널, 초상증권인터내셔널, 건설은행 인터내셔널)이며, 그 외에도 농업은행인터내셔널(6위)과 중국은행 홍콩(7위)이 10위권에 진입함

■ 보험

- 2018년 6월 기준 홍콩에는 160개의 보험사가 존재하며, 그중 93개는 일반보험업무(손해보험)를 하며, 48개 보험사는 장기보험업무(생명보험), 나머지 19개 보험사는 종합보험업무를 함
 - 등기위원회에 등기한 보험대리상은 2,410개이며, 개인대리상 6만 3,931개, 책임자 및 업무대표가 2만 5,668명에 달함
- 2017년 중국 본토 자본이 홍콩에 설립한 보험사는 18개인데, 일반업무를 하는 손해보험사가 13개, 장기업무를 하는 생명보험사가 4개, 종합업무를 하는 재보험회사가 1개 있음
 - 그중 중국생명(中国人寿, China Life)인터내셔널과 중국은행생명(中 银人寿)은 개인 수입보험료 순위에서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함

3) 마카오의 금융 발전 현황

■ 은행

- 마카오의 은행은 29개이며, 분지행은 210개임. 2017년 기준 은행업 총자산은 전년대비 9.8% 증가한 1.53조 마카오 달러임

표 6 | 2017년 마카오 은행 상황 (단위: 개)

	등록 은행	분행	총수
은행 수	9	20	29
본점, 분지행 합계	131	79	210
종사자 수	3,719	2,491	6,240

출처: 亚洲金融智库(2018)

- 마카오 은행업 총자산은 2015년 1조 3,408억 마카오 달러에서 2017년 1조 5,267억 마카오 달러로 꾸준히 증가함
 - 2017년 예금액과 대출액은 각각 1조 226억 마카오 달러와 8,960억 마카오 달러를 기록함
 -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은 각각 345.5억 마카오 달러와 77.7억 마카오 달러에 달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48.1억 달러를 기록함

표 7 | 마카오 은행업의 주요 재무재표 (단위: 억 마카오 달러)

연도	총자산	예금액	대출액	이자수입	기타 수입	영업이익
2015	13,408	8,600	7,609	325.8	62.9	128.1
2016	13,904	9,418	7,843	300.7	72.1	142.8
2017	15,267	10,226	8,960	345.5	77.7	148.1

출처: 亚洲金融智库(2018)

- 중국계(중국 본토)와 홍콩계 은행은 각각 7개와 8개로 총 15개에 달함. 중국계 은행의 분지행은 79개이고 홍콩계 은행의 분지행은 21개로 총 100개나 됨
 - 그중 중국은행과 공상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마카오 은행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함. 양자의 총자산과 영업이익이 마카오 은행업 전체에서 접하는 비중이 각각 55.4%와 53.5%에 달함
 - 특히 중국은행은 2017년 총자산과 영업이익 점유율이 각각 40.3%와 37.9%에 이를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짐

■ 보험

- 마카오 보험회사는 총 24개이며, 그중 생명보험사와 비생명보험사가 각각 11개와 13개임
 - 24개 보험사 중 마카오 로컬 보험사와 외자보험사는 각각 9개와 15개임. 그중 중국계 보험사는 생명보험사와 비생명보험사가 각각 1개임
- 마카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5년 73.6%에서 2016년 52.6%로 증가하면서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함
 - 2017년 마카오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196.4억 마카오 달러를 기록함
 - 2017년 마카오의 비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22.9억 마카오 달러를 기록함
 - 2017년 보험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8% 증가한 219.3억 마카오 달러에 달함

표 8 | 2015~2017년 마카오 보험업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억 마카오 달러, %)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생명보험	120.4	73.6	183.7	52.6	196.4	6.9
비생명보험	20.8	6.4	21.6	3.7	22.9	6.0
총액	141.2	58.9	205.3	45.4	219.3	6.8

출처: 亚洲金融智库(2018)

- 중국생명의 순자산과 수입보험료 규모는 1위를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음
 - 중국생명의 순자산은 2014년 88.3억 마카오 달러에서 2017년 422.0억 마카오 달러로 증가하여 55.0%의 시장을 점하고 있음
 - 중국생명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4년 37.4%에서 2017년 58.2%로 상승함
- 반면, 홍콩계 보험사의 순자산과 수입보험료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홍콩계 보험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5년 31.4%에서 2017년 2.8%로 감소함
 - 홍콩계 보험사의 순수입보험료는 2015년 -54.9%, 2016년 -42.6%, 2017년 -17.2%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3. 웨강아오 대만구의 금융 협력

- 웨강아오 대만구는 위치상으로는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포산(佛山), 장먼(江門), 둥관(東莞), 중산(中山), 후이저우(惠州), 자오칭(肇慶) 등 광둥성의 9개 도시 이외에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함
 -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앙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건설하는 국가급 신구에 해당함
- 중국 정부는 웨강아오 대만구를 미국의 뉴욕만이나 샌프란시스코만, 일본의 도쿄만과 같은 만구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규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 웨강아오 대만구는 여타 만구에 비해 1인당 소득 수준은 크게 떨어지지만, 면적이나 인구 규모는 훨씬 앞서고 있으며, GDP 규모는 여타 만구보다 앞서거나 약간 뒤지는 수준임
 - 항공 여객이나 항공화물 운송량에서는 여타 만구를 크게 앞서고 있음
 - 3차 산업 비중은 62%로 여타 만구에 비해 뒤지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큼
 - 웨강아오 대만구는 1인당 GDP가 여타 만구에 비해 크게 떨어지므로 성장잠재력이 큰 만구라 할 수 있음. 동 지역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하는 기업의 수도 증가할 전망임

표 9 | 웨강아오 대만구와 주요 만 경제권의 비교

구분	웨강아오 대만구	샌프란시스코 만구	뉴욕 만구	도쿄 만구
면적(만 km ²)	5.59	1.79	2.15	3.65
인구(만 명)	6,958	768	2,340	4,396
GDP(억 달러)	15,134	8,000	16,574	18,870
1인당 GDP(만 달러)	2.2	10.2	6.0	4.3
항공여객 운송량 (만 연인원)	20,169	8,134	13,224	12,389
항공화물 수송량 (만 톤)	796	118	216	358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만 TEU)	6,834	237	625	773
3차 산업 비중(%)	62	83	89	82
세계 500대 기업 수(개)	17	28	22	60

출처: CEIC(2019)

1) 주식시장의 발전과 용자 플랫폼

- 선전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은 2018년 2,134개에 달하며, 시가총액이 16조 5,409억 위안에 이룸
 - 그중 주거래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473개에 불과하며, 중소기업판 시장(922개)과 창업판 시장(739개)에 다수의 기업이 상장됨
 - 시가총액은 (선전)주거래 시장이 5조 4,828억 위안이며, 중소기업판 시장과 창업판 시장이 각각 7조 122억 위안과 4조 459억 위안을 기록함

표 10 | 선전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 현황 (단위: 개, 억 위안)

	선전주거래 시장	중소기업판 시장	창업판 시장	소계: 중소기업 시장	선전거래소 시장
상장기업	473	922	739	1661	2,134
시가총액	54,828	70,122	40,459	110,581	165,409

출처: 선전증권거래소(2018)

■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 웨강아오 대만구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함. 2018년 9월 15일 웨강아오 대만구의 A주 상장기업은 515개임
 - 그중 선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452개로 시가총액이 4조 7,852억 위안에 달하며,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63개로 시가총액이 3조 5,786억 위안에 달함²⁾
 -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223개로 시가총액이 8조 2,443억 홍콩 달러에 달함
- 웨강아오 대만구 9개 도시의 기업이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접하는 비중도 2013년 말 7%에서 2018년 9월 15일 15%로 상승함
- 중국 본토에서 일시적으로 IPO가 중단된 시기에는 홍콩증권거래소가 웨강아오 대만구 기업 IPO의 중요한 통로가 됨
 - 그 외에도 중국에서 상장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상장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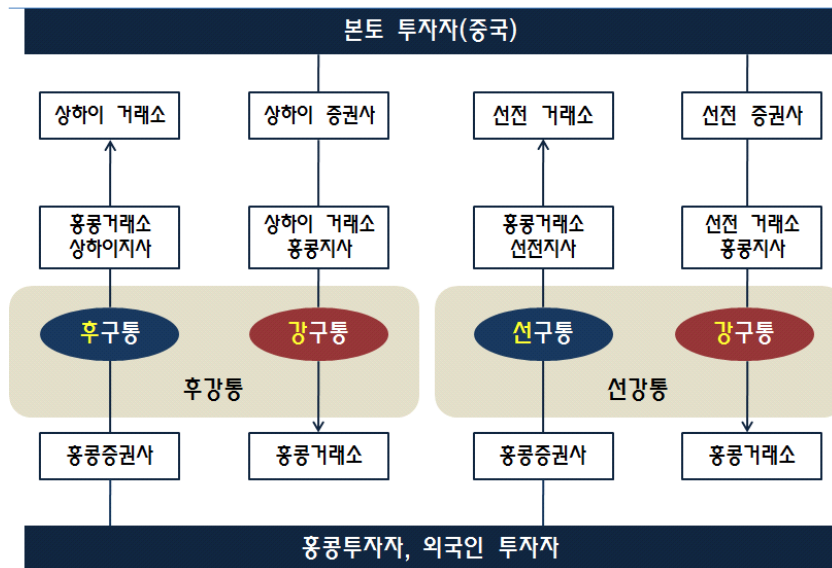
2) 중국의 증권거래소에는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가 있음.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주거래 시장과 2019년 개장한 커창반(科创板) 시장이 있으며, 선전증권거래소에는 주거래 시장 이외에 중소기업판 시장과 창업판 시장이 개설됨.

- 증권거래소(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요 업종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이외에 부동산, 소비자, 일반 제조업, 과학기술업종, 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남

■ 선강통을 통한 주식거래

- 2016년 12월 5일 선강통(深港通)이 개통되면서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의 교차 주식투자가 가능해짐
 - 선강통은 선전증권거래소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H주)에 투자할 수 있는 '강구통(港股通)'과 홍콩증권거래소 투자자들이 선전 A주를 매매할 수 있는 '선구통(深股通)'으로 구성됨
 -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선강통에 편입된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73%에 달함. 선구통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선전증권거래소 주식의 시가총액은 76%에 달함

그림 1 |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한 교차 주식투자 채널



출처: 저자 작성

■ 적격 역외기관투자자(QFII)

- 적격 역외기관투자자제도는 역외기관투자자들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을 경우 일정 한도의 금액을 들여와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2018년 8월 QFII 한도액은 1,004.6억 달러에 달하며, 위안화 적격 역외기관 투자자(RQFII) 한도액은 6,274억 위안, 적격 역내기관투자자(QDII)³⁾는 1,032.3억 달러에 이룸

2) 채권시장

-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웨강아오 대만구의 기업이 꾸준히 증가함
 -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판다본드⁴⁾에서 웨강아오 대만구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비중은 2015년 34.6%에서 2016년 60.9%로 절정에 달한 후 2017년에는 49.1%, 2018년 1분기 23.7%로 하락함
- 웨강아오 대만구의 채권 발행 주체는 홍콩에 집중되어 있음
 -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광저우, 선전, 포산 등 광둥성의 주요 도시에 법인(주소지 혹은 본사)을 둔 회사가 발행한 판다본드 발행 규모는 333억 위안에 달함
 - 동 기간 홍콩에 법인을 둔 기업의 판다본드 발행 규모는 1,130.4억 위안에 달함

3) QDII제도는 국내 자본계정이 개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증권감독위원회가 조건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한해 역외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4)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판다본드라 하며, 홍콩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덤섬본드라 함.

3) 위안화 국제화

■ 초국경 위안화 경상계정 및 자본계정

- 광둥성이 초국경 위안화 업무에서 접하는 비중은 2010년 43.5%에서 2017년 23.4%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1위를 기록함
 - 광둥성이 초국경 위안화 경상계정에서 접하는 비중은 2015년 26.3%에서 2017년 28.0%로 상승하였으며, 마찬가지로 1위를 기록함
 - 광둥성이 초국경 위안화 자본계정에서 접하는 비중은 2015년 22.6%에서 2017년 19.3%로 상하이에 이어 2위를 기록함

표 11 | 광둥성이 초국경 위안화업무에서 접하는 비중 (단위: %)

지역	경상계정 비중			자본계정 비중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둥성	26.3	29.2	28.0	22.6	25.2	19.3
상하이	16.6	18.8	20.9	31.7	27.7	39.5

출처: 亚洲金融智库(2018)

■ 위안화 무역 결제

- 홍콩의 위안화 예금액은 2018년 7월 6,076억 위안에 달함
 - 그중 무역결제와 관련이 있는 위안화 송금액이 3,616억 위안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함

4. 종합 및 함의

- 웨강아오 대만구의 9개 도시에는 홍콩과 마카오의 금융기관이 활발하게 진출할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의 금융기관도 홍콩과 마카오에 적극적으로 진출함
-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는 사용하는 화폐 단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융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웨강아오 대만구 기업은 상하이증권거래소나 선전증권거래소 이외에도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있음
- 웨강아오 대만구 기업과 홍콩의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에서 위안화 예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됨
- 홍콩은 위안화 국제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웨강아오 대만구가 홍콩에서의 위안화 국제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함
 - 홍콩은 위안화 예금뿐만 아니라 위안화 채권, 위안화 보험 등 위안화 금융상품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선도함

참고자료

- 김동하(2019),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전망과 시사점”, 『INChinaBrief』, 373.
- 박소희(2019), “중국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계획과 연계한 한·중 산업협력 혁신거점 육성방안 : 후이저우 한·중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43(1).
- 장상현(2018), 『아시아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KOTRA.
- 亚洲金融智库(2018), 『粤港澳大湾区金融发展报告』, 中国金融出版社.
- 中国国家统计局(2000~2018), 『中国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
- CEIC, www.ceicdata.com(검색일: 2019-09-30)
- 中国政府(2019), 「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 中国政府(2016),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广东省政府(2016), 「广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王丽莹, 徐可(2019), 「2018年广东宏观经济运行情况分析」, 中国国家统计局.
- 齐婧(2019), 「精读《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China Real Estate』.
- 2016年1月30日省十二届人大四次会议审议批准(2016), 「广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CEIC. 2019. Guangdong-Hong Kong-Macau Greater Bay Area.